

退溪學은 未來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高 橋 進*

• 목 차 •

- | | |
|--------------------------------|--------------------------------|
| I. 학문이란 무엇인가—현대의
학문·교육의 상황— | 전통교육으로서의 유교 |
| II. 일본의 근대화와 교학 | IV. 퇴계학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었는가 |
| III. 서양문명의 移入과 | V. 결 론 |

1. 학문이란 무엇인가—현대의 학문·교육의 상황—

퇴계학은 유학의 정통을 계승하는 것을 자임한, 李退溪라고 하는 뛰어난 불세출의 한 인격에 의하여 개성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실현된 학문 형태이다. 따라서 퇴계학이 미래에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바로, 전통적 유교 내지 유학이 현대에서 미래에 걸쳐 지향해야 할 유효한 것을 현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어도 방법론적으로는 현대 문명 비판을 기저에 두고서, 본래의 학문·교설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를 천명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에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기초부터 응용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술 연구는 주로 대학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은 학술 연구의 전당임은 물론, 학예의 연구와 교수에 의

* 目白大 총장

** 이 논문은 제14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하여 피교수자의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각국에 거의 공통된 현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교육기본법」(1947. 3. 31, 법률 제26호) 제5장, 제52호에서는 대학의 목적을,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널리 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깊이 전문 학예를 교수 연구하고, 지적·도덕적 및 응용적 능력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대학의 목적」에 관한 정의를 분석해 보면 현대적인 대학의 과제(목적)와,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 및 목적이 명료해진다. 앞에서 제시한 일본의 학교 교육법에 있어서의 대학의 목적을 예로 들면, 우선 대학은 학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 넓은 지식과 전문 학예를 연구 교수하여야 할 것, 그것에 의하여 학생의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 응용적 능력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의 목적 속에 「도덕적 능력」이라고 하는 Term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특히 본 논고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논하기 전에 이 도덕적 능력에 관련되는,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고등교육에서 현재 가장 선진적인 것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넓은 의미의 인간 형성에 관계되는 교육이 대학의 주류인데, 그것을 Liberal arts, 즉 교양학과 또는 학예라고 한다. 현대에는 어학·과학·철학·역사 등의 광의의 교양 교육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반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교양 교육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교양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말하고 쓰는 것이 명료하다. 그러한 사람은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명쾌하고 솔직한 표현을 하도록 힘쓰며,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그는 합리적·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며, 사건을 단순한 의견과 구별할 수 있다...창조적 독창적으로 사고한다...통찰력이 뛰어나고, ...미에 감동한다...다만 「박식」한 것만이 아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 생활이나 기타의 운영을 전체적인 관련 속에서 생각하며,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는 충분한 사고력을 가지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며, 또한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나 문제들·시대나 장소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바의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한다...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관대하며, ...성실함을 중시하고, 어떠한 사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고, 신을 섬기기 위함이며, ...멋있는 인간이다.(Paul Woodring;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 A Reassessment, 1968. 미국의 대학, 米盛裕二 外譯, 212, 213쪽)

긴 인용문을 주목할 만한 어구들을 중심으로 열거하였다. 이를 보면, 미국의 교양 교육은 상당히 광범위한 학문 범위에 걸쳐 있으며 이른바 「도덕적 능력」에 해당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우리 동양 문화권 특히 동아시아 제국의 대학이 세우고 있는 목적과 비교해 보면 아마도 일본의 경우처럼 지적·응용적 능력과 함께 「도덕적 능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도덕적 능력」이라고 하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적 의미와 그 전통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의 문명 비평에 바탕을 둔 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미국의 엘리트 대학군 즉 하버드·예일 등의 이른바 동부 아이비리그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예로 보면, 대학이 고전적 학풍 속에서 주지주의의 포로가 되어 「부자연스럽다고 할 정도로 기교적인 질문」을 하여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며, 「지식의 집적에 초점이 맞춰져」 학업의 본래의 목적, 즉 「정신의 독립이나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 등은 「등한 시되고」 있다. 또 「형식적 합리성이 중시되고」, 「윤리 도덕 등의 애매 모호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는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天羽君子 ; 아

메리칸 드림의 빛과 그림자—콜롬비아 대학의 캠퍼스에서—, 104~115)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이 교양 교육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실태는 그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대학에서는 학교 교육법의 대학의 목적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 특히 「도덕적 능력의 전개」라는 것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최근 일어난 음진리교의 대량 살인 및 미수 사건이다. 그 교주는 원래 침구사였는데, 그가 제창한 종교적 교설이 현대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에 입신한 신자가 교주의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에 의하여 수많은 대량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교단의 주요 간부들이 잔학비도한 살인귀로 변한 결과가 폭로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요한 인물은 일본의 일류 대학의 이공계 출신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 속에는 의사가 몇 사람 있었다. 의학, 물리학, 공학 등을 배워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활약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분쟁의 비리곡직을 바로잡는 변호사도 그 속에 있어 흑백을 따지다가 비합법적인 활동을 한 결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범죄의 실태가 밝혀지고 범죄에 가담한 자의 실명이 밝혀지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어째서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살인귀로 변했는가, 그 출신 경력을 보고 그저 놀라고 걱정하고 격노하였다. 그리고 지식인은 신문 등에서 현재의 일본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기술·지식만을 중시하는 데 급급하여 인간의 삶의 근본을 교육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등의 여러 가지 반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

II. 일본의 근대화와 교학

1995년 9월 18일부의 讀賣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은 논설을 실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신문은 일본에서 최대의 부수를 간행하고 있는

신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실시해 온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음진리교 사건에 관하여 많은 교사들로부터 이러한 술회를 들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움으로 달려갔다. 더욱이 그 중에는 이른바 「수험 엘리트」가 적지 않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질책하는 태도이다...돌이켜 보면 전후 50년의 교육은 철학이나 윤리를 무용지물로 취급하여 옆으로 몰아낸 역사는 아니였을까. 인간 형성이나 시민으로서의 교양, 혹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게을리 하였던 50년이 아니였을까. 1872년의 「학제」 公布로 시작된 근대 학교 제도는 일관하여 「효율」을 척도로 하여 확충되어 왔다. 단순화하면 일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戰前은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전후는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교육이라는 색채가 농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나라의 통제 하에서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학교에서 오로지 아이들을 경쟁시켜 학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협조적이고 평균적으로 질 높은 노동력을 생산하여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50년간 진학 경쟁에의 참가자가 불어나고 있다.

고학력화의 대중화를 이룩한 반면 과도한 경쟁과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등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후의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 열심인 국민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욕구, 여기에 경제적인 여유 등이 겹쳐진 결과이다. 그 사이 교육행정은 오로지 「그릇」을 만들어 「수용」하는 양적인 대응에 쫓겨 질적인 면에 좀처럼 눈이 가지 않았다. 더욱이 본래 함께 교육을 담당해야 할 문부성과 日教組는 불모의 대결을 계속해 왔다...오랫 동안의 대립의 구도는 70년대부터 시작된 아동들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느낌이 든다. 일찍이 학교는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이러한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아동 측에서 던져졌다. 70년대로부터 80년대에 걸쳐 현저해진 등교 거부와 동료를 괴롭히는 현상의 多發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동들은 빨리 해답을 내는 경쟁을 강요받는다. '왜'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 외운다. 학교의 등급을 중시하면, 남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경쟁 체제가 된다. 「다양한 개성을 살리자」고 말로만 하고 있

지만 현실로는 학교에의 순응 방법이 우선된다. 이러한 학교의 방침에 의심을 가지고 경쟁과 효율에 등을 돌리는 아동이 생기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등장한 것이 11년 전의 임시 교육심의회이다. 임시 교육심의회는 사회의 요청에 무게를 둔 그 이전의 교육 개혁론과 달리 「교육을 받는 측의 입장」을 전면에 내고 자유화·개성화·다양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자유화」를 단적으로 정리하면, 규칙을 완화하고, 교위(교육위원회)나 학교·교사의 재량의 폭을 넓히며, 동시에 아동들에게 배움의 자유나 개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학 정책은 「행동 지도형」으로부터 「자유 경쟁형」으로 전환되었다. 학습 지도 요령도 한층 유연하게 되었다. 등교 거부에 대해서도 학교 밖에서의 「우회하는 길」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개혁은 아직 시작의 단계이다. 교위나 학교 현장에는 아직 자유화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이 있다.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우 긴 인용이지만, 감히 그 주요 부분만을 소개하였다. 이 논평은 필자가 늘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일치하므로 그 견해나 반성은 대체로 수긍이 간다. 일본의 교육을 전전과 전후를 통하여 개관하고, 전전의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전후의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로 특징 지우고 있다. 맞는 말이다. 도대체 일본이 근대화될 때 즉 德川幕藩 체제가 붕괴하고 明治維新이 출현하였을 때 일본은 국민 교육을 오로지 서구의 그것에 맞추었고 학교 교육의 체계도 그것에 맞추었다.

위의 사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明治 5년(1872)의 학제 제정 후 수년간은 서양 근대의 자유주의·민주주의 사상에 의하여 쓰여진 번역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여 사회에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군신도덕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도덕의 퇴폐로 생각되었고, 신사조를 이론상으로는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 사람들도 감정은 다른 것이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획일주의의 학제를 수용하고 교육학 상의 주의·교수 방법·교재 교구 등은 미국의 실리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학문은 국가

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학문관을 비판하였다. 학문은 四民(사·농·공·상)이 평등하게 해야 할 것으로 立身治産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국가의 부강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었다.(古川哲史編; 일본 도덕 교육사, 167쪽 이하 참조)

Ⅲ. 서양문명의 이입과 전통교학으로서의 유교

자유·민주사상의 이입은 모든 면에서 양풍을 제일로 여기고, 교육 방침은 知育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도덕 교과는 다른 교과보다도 훨씬 경시되었다. 당시의 「소학 교칙」에 의하면 하등 소학의 2년간만 「修身口授」(行儀의 깨우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明治 10년(1877)의 「서남의 역」이 끝난 뒤 자유 민권운동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 운동의 반정부적·현상타파적 성격에 현혹되어 현상에 불만을 가진 사족층이 대거 참가하였다. 明治 정부의 當路者들은, 결국 이 운동은 그들의 정치적 지배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明治 11년(1878)에는 국내의 혼란과 교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바로 잡고자 하여 日王의 이름으로 「敎學大旨」가 발표되었는데, 거기에는 「문명의 개화가 늦게 이루어져 품행을 파괴하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화 일변도의 세상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금후의 바람직한 교학, 특히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금후로는 祖宗의 訓典에 기초하여, 오직 仁義忠孝를 밝히며, 도덕의 학은 공자를 주로 하여 사람마다 성실 품행을 숭상하며」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도덕 품성은 공자 교학, 즉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실시할 것이 정해져 있다.

幕藩 체제의 붕괴, 왕정복고, 『日王 중심의 정치』, 서양 학예의 이입,

자유주의·민주주의의 고양 등의 이른바 「維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특히 교학 관련으로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즉 유럽화인가 전통인가 라고 하는 가치판단을 동반하는 취사선택이 있었다. 明治 정부가 주저함이 없이 유럽화 일반도의 조류 속에서 도덕 품성의 학은 유교에서 취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明治 日王의 侍講인 元田永孚(1818~1891)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이하에서는 廣池學園出版部刊, 모럴러지연구소편, 일본의 근대화와 정신적 전통, 281쪽을 자료적으로 참조하였다.) 元田은 明治 중기까지의 풍조 속에서 유교적 전통 문화를 가지고 일본 국민의 자각을 재촉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신 이래의 서양 문화의 표면적 섭취에 대한 부화뇌동하는 일본인의 자세에 대하여, 예를 들면 元田은 『論語』의 「溫故而知新」의 강의 중에,

오늘날 학문이 크게 열려 사람들은 옛 것에 안주함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아는 데 오로지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태는 이 章의 「知新」처럼 생각되지만 곰곰이 이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은 공자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新知, 新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서구의 「옛 것」으로 우리 마음에서 신지, 신발명을 끄집어 낸 것이 아닙니다.(문서3·362)

라고 하였고, 다시 「시세의 풍조에 따라 일신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新規新規라 하여 서양풍으로 고치는 것은 실로 알팍한 것으로,…」라고 한탄하였다. 그는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橫井小楠과 절친한 친구이었으므로 橫井과의 교류에 의하여 얻은, 해외 사정이나 개국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일본인이 외국과 대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성의 확립을 선결할 것을 기본자세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元田은 한갓 서양 문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 없이 신규의 문화에 右顧左眄하는 일본인의 처신이 그에게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금후의 일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양은 일신을 숭상하여 점차 개명으로 나아가 이제 제도, 기계, 사물

의 문명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개신하는 날에는 반드시 도덕의 개명에 이를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일본과 支那는 도덕의 源頭이므로 빨리 착안하여 서양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지극한 희망입니다.(문서3·400)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뒤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을 통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 元田의 이 말의 뜻은 오늘날의 일본에 적용된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나면 인심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간 본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元田의 사상이었다. 서양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조류였으므로 도덕 국가를 추구한 것은 당시의 사상가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학문관은 어떠한 고유문화에도 구애되지 않는 입장이었다.

국학이라는 것도, 한학이라는 것도, 양학이라는 것도 그 근본은 모두 人道의 학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국학자·한학자·양학자가 한 쪽에 치우쳐 구애되는 학문은 대부분 人道의 학문을 벗어났습니다. 의리를 밝히며 典故에 어두우며 연혁에 상세한 것은 국학의 긴요한 곳이고, 經史에 밝고 治亂을 알며 문장을 잘 하는 것은 한학자가 귀하게 여기는 곳이며, 천문·지리·법률·기계·百課의 학은 양학의 실용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깨닫고 의리를 밝히며,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마음을 바로잡아, 家·國·천하에 이르는 實法政理의 실학으로서 그 순수함을 다한 것은 공자의 학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문서2·312)

한 쪽에 구애된 학문은 「人道의 학문」을 벗어나고 만다는, 마치 오늘 의 학문 상황을 말하는 듯하다. 어떠한 학문·전문을 배우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자각하고, 일의 시비곡직을 명확히 하며, 誠意·正心을 가지고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가·천하에 영향을 주는 실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자 교학의 大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元田은 특히 『論語』를 중시하고 그

보편성을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論語라는 책은 버려도 버려도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책으로, 비록 책 그 자체는 낡아서 버려지더라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大道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실지로 행해져 사람들이 날로 쓰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저 서양 철학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행 속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은 공자의 덕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서2·230)

이와 같은 학문관·국가관·세계관·국제감각을 가진 元田이 明治 日王의 시강이 되어 유신 이후의 일본국의 교학의 양상을 통찰하고 있었으므로 또한 일왕이나 당시의 정부 고관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학제 반포 이후 도도한 서구 문명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일본의 교학의 방향이, 기예·학예는 크게 서양의 것을 수용하더라도, 도덕·품성·충효·인의의 유교적 핵심은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것에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教學大旨」가 明治 11년에 발표되었고 그 전에 『幼學綱要』(明治7년)가 전국 소학교에 반포되었으며, 『教育勅語』(明治23년, 1890)가 발표되는 등, 소학으로 시작되는 일본의 교육 가운데 수신으로 불려지는 도덕교육이 정착하게 된 필연성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 森有禮가 문부대신으로 취임한 이래 그의 교육 방침에 의하여 일본의 교육이 현저하게 국가주의·군국주의·부국강병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의 역사적 경위이다.

IV. 퇴계학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었는가

李退溪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발상은 반드시 학문적 접근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학문은 본래 늘 비판적 정신·비평·재검토라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가 논술한 이러한 자세는 근대 서양의 학문에서 터득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학자, 적어도 江戸시대 내지 明治維新 이후의 元田永孚나 横井小楠·西村茂樹·加藤弘之·岡倉天心·新戶部稻造·杉浦重剛 등 각각 개성적이긴 하지만, 일본의 문명 개화기에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나라의 주체적 독립성을 보존하면서, 서구 문명에도 대항하려 한 사람들은, 학문을 단순한 지적인 이해·해석과 소개에 그치지 않고, 당면한 현상과 장래에의 통찰에 의하여 신중히 학문 내지 교설의 시비·가치를 물었다. 이러한 자세는 明治 이래 백년 사이에 이입된 서양의 합리주의·비판주의의 일상화 속에서 어느덧 잊어버림으로써, 학문을 위한 학문, 자기의 입신출세를 위한 학문 연구가 되고 말았다. 일본에서 음교의 사건이 일어난 이래 추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합리적·과학적·효율적인 학문과 교육에 대한 백년 이상에 걸친 반성이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 우리들이 정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신중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무엇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가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근대화와 학문·교육의 역사적 경위를 거울삼아, 우리들의 李退溪는 현대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를 라고 하는 점을 고찰하기로 하자.

李退溪의 학문이 어떻게 일본에 도입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가 있다. 특히 阿部吉雄씨의 연구 『일본 주자학과 조선』이 상세하다. 지금 이 분야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李退溪를 학설·학리의 선인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존경·존송해야 할 인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山崎闇齋와 그의 문인인 佐藤直方·三宅尙齋·淺見綱齋 등의 崎門三傑, 九州 熊本の 大塚退野와 문인인 横井小楠·元田永孚 등이다. 특히 闇齋의 문인은 6000명이었다고 한다. 그 문류가 극히 성대하여 江戸시대의 사상사·교육사에서 위대한 영향을

끼쳤다.(阿部の 전계서, 石川謙 『일본 학교사의 연구』를 참조)

또 大塚退野는 처음에는 陽明學·中江藤樹의 학을 신봉하고 있었으나 28세 때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정주학의 의미를 알았다.(이하, 阿部の 전계서 참조)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28세 때 정주의 학에 뜻을 두었다. 그 전에는 陽明의 학을 믿고 良知를 본 듯 하였다. 그러나 聖經에 비추어 보면 평이하지 않았으므로 가만히 의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자성록을 읽는 가운데 정주의 뜻을 알아 비로소 뜻을 정하였다.(「退野語錄」)

自省錄을 한 번 읽었다. 오랜만의 독서였다. 더욱더욱 퇴계의 경지를 헤아릴 수 없음을 알았다.(「孚齋存稿」하, 贈中瀨某)

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퇴계의 자성록을 읽은 뒤 정주학으로 전향한 것이다. 또한 그는 퇴계의 「朱子書節要」에 대해서 더욱 침잠하여 드디어 自得開悟하였다. 退野의 同學이며 형으로 섬겼던 藪孤山(1735~1802)은,

퇴계 이선생은, 學은 紫陽을 宗으로 삼고 遺書에 依憑하였다. 그의 본바, 확립한 바는 선현과 同遊面命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백 세 뒤에 자양의 업을 이어받은 자는 그 뿐이다.(「愼庵遺稿」권6)

라고 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藪孤山이 얼마나 자성록·주자서절요 등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橫井小楠은 退野의 학을 흠모하였고 또 李退溪의 학을 배웠다. 그는 스승인 퇴야의 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誠, 더욱 깊고 절실하게 되었다. 진유라고 해야 할 사람이다.(山崎正董 「橫井小

楠」 유고집, 本庄一郎에게 보낸 서한)

□ 明一代의 진유는 薛文靖입니다. 그리고 그 외 조선의 李退溪가 있습니다. 퇴계는 오히려 문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주자 이후 이 두 현인 뿐입니다. 그러므로 讀書錄·自省錄 등의 책은 정주의 책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이 습득하여야 할 것입니다.(동상)

이를 보면 일본에 있어서 李退溪의 학문이 얼마나 평가되고 존중되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인격적인 존경과 심취한 정도를 알 수 있다. 横井小楠은 李退溪의 학문 특히 「自省錄」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퇴계의 말에서 보면,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의 궁통, 득실, 영욕 등과 같은 것은 일체 도외시하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가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확실히 알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五分·七分 없어진다.

위와 같이 小楠은 우선 李退溪의 말을 소개한 뒤, 李退溪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학자는 우선 본령을 세워야 한다. 본령이 이미 세워지면 처할 곳이 생긴다. 이른바 본령이란 李退溪의 이 말 속에 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이해하여 산뜻하게 脫却하면 順境나 逆境할 것 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태연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이상, 横井小楠, 유고편)

‘본령의 파악이란, 본령은 仁義禮智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또 性命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사실 사람이 그것을 본래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본심이 감동하여 발동할 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고서 과연 이것이었구나 하고 참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령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同上, 附聖學問答) 小楠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

과 파악하는 것은 다르다.»고 명확히 말하여, 단순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학문을 부정하였다. 여기에 그의 주체적인, 진정으로 ‘erleben’되고 혈육으로 화한 학문에의 길·도전이 있었던 것이다.

元田은 상술한 바와 같이 大塚退野의 학을 배우고 李退溪·주자의 학을 존신하였다. 明治 일왕의 시강이 되어 明治 이후의 일본의 교육방침의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선행 연구에 의하여 알려진 바이다. 「정주의 학은 조선의 李退溪에 전해졌는데, 퇴야선생이 그의 所撰인 『朱子書節要』를 읽고 초연히 얻은 바 있었다. 나는 지금 퇴야의 학을 전하여 이를 지금의 임금에게 바친다.」(高橋亨 「日鮮史話」 제6편)라고 한 것이다. 이미 元田의 학문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다. 그는 서양의 문화·학문에 부화뇌동하여 달려가는 당시의 풍조·人士에 대하여 輕佻浮薄하다고 비판하였다. 진정한 학문은 지식을 잘라 파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학을 여하히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중하게 따를까 하는 것에 있었다. 즉 元田은 당시의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기본 자세를 문책하였던 것이다. 한갓 서양의 학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질책하였고, 또 도덕·품성의 학은 공자, 특히 『論語』보다 나은 것은 세계가 넓다 하더라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元田이나 당시의 마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야말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다.

V. 結 論

李退溪라고 하는 인격 및 그의 학문이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단순한 지식의 집적으로서 수용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학지는 위대한 사람, 존경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심정적 감동을 가지고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미 필자는 줄저

(『李退溪와 敬의 철학』)에서 논술한 바이지만, 그의 「자성록」은 바로 학자·교육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지한 자성과 실천의 마음가짐·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자율의 정신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필자로 하여금 감탄하게 한 점이다.

대학은 학문 연구만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다. 오늘의 일본의 대학은 지식을 파는 장소로 변하여 학생에 대한 진정한 교육은 행해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 증거로 미국식의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를 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대학심의회」(문부성 설치, 大臣의 자문기관)에서는 「교원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답신을 제출하였다. 아직 중간보고 단계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보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이 새롭게 인식되어, 참으로 대학에 어울리는 것으로 만들어갈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李退溪의 학문·인격, 지금까지 논한 그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 또 일본에 있어서의 유신 開明기의 학문이나 문화에 대한 기본자세 등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동기에서 접근한 것이 이 보고이다. 이것이야말로 퇴계학 내지 李退溪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문 연구는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학문의 태도·자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과거를 거울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